

‘영혼을 부르는 소리’ 버들피리 명인 박산일

글 김기형 덕성여대 교수



로봇 대신 개구리나 잠자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그 시절, 개울가에 늘어진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어김없이 아무 가지나 뚝 잘라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곤 하였다. 간혹 버들피리를 멋들어지게 부는 어른들도 있었다. 홍명희의 「임궏정」에는 단천령 원님이 호드기를 잘 부는 것으로 유명하여 호드기 원님으로 불렸다는 표현이 있다. 호드기가 바로 버들피리인데, 이로 보건대 예전에는 원님같이 지체 높은 분들 가운데

에서도 버들피리를 즐겨 불던 이가 있었던 모양이다.

개울가뿐만 아니라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버드나무이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 누구에게나 친숙한 버들피리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자연의 소리이자 추억의 소리이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잘 볼 수는 없는 버들피리로 민요,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여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어보인 우리 시대의 숨은 명인이 있다. 현재 춘천시 소양로 1가

92-48번지에 살고 있는 박산일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2002년 6월 3일, 박산일 선생을 만나기 위해 경춘가도를 달려갔다. 야트막한 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자리잡은 선생 댁을 찾아가니 반갑게 맞아주신다. 혈당량이 높아지는 등 요즘 들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면서도 윤기 있는 목소리로 논리정연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당당하게 세상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 보기 좋다.

어린 시절 실명 후 다가온 구원의 소리 ‘버들피리’

박산일 명인은 춘천 토박이로, 1947년 3월 23일 하일 마을에서 태어났다. 네 살 되던 해 그는 천연두를 앓다가 실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한다. 실명한 그는 춘천 북산면 추전리 할아버지 댁에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어머니 원망도 많이 하였지만, 점차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현실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창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그에게 구원의 소리로 다가온 것이 바로 버들피리다. 당시 추전리의 아이들도 너나없이 버들피리를 불면서 놀았다. 그렇지만 어린 박산일에게 있어 버들피리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 동네에 버들피리를 기막히게 잘 불던 연세 많은 노인이 한 분 계셨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노인은 일곱 살의 어린 박산일에게 버들피리를 만들어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넌 친구들과 놀 수도 없으니, 이런 거라도 불어서 혼자 심심하지 않게 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노인이 버들피리를 불면 소년은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익혔다. 추전리 마을은 강가에 위치해 있어, 움푹 들어간 강변에 앉아 버들피리를 불면 그 소리가 메아리를 쳐서 이쪽 저쪽을 왔다갔다하곤 했는데, 그 울림이 가히 환상적이었다. 강변에서 소년은 노인이 가르쳐준 버들피리를 불고 또 불었던 것이다.

그 노인으로부터 소년이 배운 소리가 강원도 메나리조로 부르는 〈영혼과의 만남〉이다. 왜 노래 제목을 〈영혼과의 만남〉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옛날에

1. 집안 곳곳에 심어놓은 버드나무 한 가지를 꺾어 즉석에서 버들피리를 만들어 연주곡을 들려주는 박산일 선생
2. 박산일 선생은 기타와 피아노 등 웬만한 악기는 모두 다룰 줄 아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의 소유자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단다. 그런데 남자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다. 그래서 여자 집 안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는데, 이를 비판하여 여자는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후 남자는 개울가에서 강원도 메나리조로 버들피리를 불곤 했는데, 그때마다 죽은 여인과 만나곤 했다. 이렇게 소리를 매개로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 <영혼과의 만남> 혹은 <영혼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아라리의 선율과 흡사한 <영혼과의 만남>은 속절없이 쏟아놓는 울음마냥 애간장을 녹이는, 참으로 애절하고 구슬픈 소리이다.

<영혼과의 만남> 외에, 그는 라디오를 듣다가 <강원도 아라리> <한오백년> 등 우리 민요가 흘러나오면 버들피리로 따라 불며 익히곤 하였다.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로 시작되는 현미의 <밤안개>도 좋아하는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였다.

열네 살이 되던 1960년 그는 서울 국립맹아학교에 입학하여, 이후 12년간 학업을 연마하게 된다. 현재 그의 생업이 된 침술도 학교에 다니면서 1966년부터 6년간 익힌 것이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청년 박산일에게 있어 버들피리는 여전히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의 원천이요 위안이였다. 틈 날 때마다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 버드나무를 꺾어 멋들어지게 불곤 했다. 한창 나이에 이성애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청년 박산일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사무칠 때마다 더더욱 구성지게 버들피리를 불곤 하였다. 본래 버들피리는 하나의 연애도구이기도 했다. 시골 총각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개울에서 먹감으면서 버들피리를 불던 동네 처녀들은 공연히 마음을 설레곤 하였던 것이다. 박산일 명인 또한 고향에 올 때마다 밤에 개울가에서 옥수수를 뜯어먹으면서 버드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불던 기억이 있다.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말이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 또한 청년 박산일이 버들피리를 멋지고 구성지게 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결혼하면서 다시 춘천에 정착하게 되는데, 혹시 버들피리 덕분에 평생 반려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하자, 그런 건 아니란다.

한국적 정서 듬뿍 담긴 자연의 소리

흔히 버들피리를 풀피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둘은 엄연히 구별된다. 풀피리는 각종 풀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것으로, 심지어는 필름 조각으로도 풀피리 소

리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버들피리는 나무를 재료로 삼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물론 나무의 일부를 잘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버들피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카시아나무나 뽕나무도 훌륭한 악기 재료이다. 버드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내내 있다면, 봄에는 아카시아나무가 제격이고 가을에는 뽕나무가 제격이다. 그렇다면 버들피리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 즉석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연주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죠. 자연의 소리라는 느낌도 좋구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안 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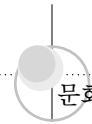
버들피리의 음역이 약 세 옥타브 정도는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곡목은 거의 대부분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 버들피리를 연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법은 호흡량과 손 모양이다. 호흡량으로 강약과 높낮이를 조절하며, 손바닥으로 피리 끝을 감싸 안았다 열었다 하면서 노래의 맛을 낸다. 꺾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얼굴 근육을 이용해야 가능한 연주기법으로, 설명을 통해서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한 공력을 들여 반복 연습해야 터득할 수 있다.

그는 집안 곳곳에 버드나무를 심어놓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한 가지를 꺾어 즉석에서 버들피리를 만들어 <강원도 아라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몇 곡을 멋지게 들려주었다. ‘아기 우는 소리’를 낼 때는 영락없이 집안에 아기가 있어 우는 것과 방불케 하였다. 버들피리만이 낼 수 있는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란 바로 이런 것이라.

그의 집에는 음악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벽면에 빼곡히 꽂혀 있는 약 6천 장 정도의 음반과 유성기 음반을 들을 수 있는 음향기기는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는 기타와 피아노 등 웬만한 악기는 모두 다룰 줄 안다. 1994년도 춘천 MBC 방송국에서 <박산일의 팝스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도 있다. 기본적으로 박산일 선생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의 소유자이다. 버들피리로 그렇게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솜씨를 지닐 수 있게 된 것은 끊임없이 갈고 닦은 숨은 노력뿐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음악실 한켠에 놓여 있는 노트를 보니, 그 동안 작사 작곡한 30여 곡의 가사와 누구에게도 쉽게 보이기 어려웠던 속내를 담아놓은 글이 적혀 있다. 그 가운데 <살 같은 세월>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온다. 유행가조로 되어 있어 다소 통속적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만큼 더 절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인생은 흐르는 물인가
살같이 빠른 세월인가
덧없이 지나가는 꿈인가
인생은 떨어진 낙엽이라
마음과 사랑은 다 지나가고
추억의 촛불을 밝히리
날 부르는 그 소리 뒤에 두고
가시밭길 홀로 가며 생각하리

정열과 진실은 다 불태우고
한숨의 검은 재만 남았어라
다 타버린 그 입술로 노래할까
그 노래 누가 듣고 울어볼까
어제도 내일도 말하리라
내 고향 갈 날 기다리리
눈물도 한숨도 없으리라
슬퍼하지 않으려다 내 인생은

〈살 같은 세월〉, 박산일 작사/작곡

버들피리로 우리 음악뿐 아니라 뉴에이지 음악도 연주

박산일 선생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분이다. 그러면서도 '버들피리로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춘천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에겐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버들피리에 관한 모든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행정당국에서 전수실을 마련하고 전수조교를 둘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정선의 〈아라리〉나 횡성의 〈회다지소리〉 그리고 강릉의 〈오독떼기〉의 경우처럼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버들피리도 멋지게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금, 아쟁, 장고, 태평소 등의 반주음악을 곁들인 멋진 버들피리 연주곡을 음반에



3, 4. 벽면에 빼곡히 꽂혀 있는 6천여 장의 음반과 CD는 음악에 대한 애정을 짐작하게 한다
5. 김기형 교수(왼쪽)와 대화를 나누는 박산일 선생

담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도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의 하나이다. 우리 음악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음악도 거의 모두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버들피리로 외국 노래까지 제대로 연주한 음반을 낸다면, 틀림없이 문화수출품으로서의 상품화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박산일 명인의 '영혼을 부르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면 그만큼 우리 영혼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